

## 인용사전(引用辭典)

김 학 진(목사, 서울 창문교회)

나는 수산 주유소에서 석유를 샀다. 성탄절 전야에 온 밤을 세우며 구주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기름이 반 통이나 든, 기름통을 들고 교회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였다. 그것도 맨땅이 아니라 눈 쌓인 길이였다.

유년주일학교 학생인 민철이와 기름통을 같이 들고 가는데도 마찬가지였다. 몇 주전에 양 전도사에게 교회에 기름이 바닥이 다 났으니 미리 한 통 사다 놓으라고 일러났으나 허사였다. 그는 요즈음 제일이 바쁘다며 교회 일에 시큰둥했다.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다. 민철이와 나는 기름통을 들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강변 옆길에는 흰 눈이 쌓여 있었다. 풀 쏘이나 나뭇잎 땅위에 내리는 눈은 제법 쌓였으나, 강물위로 떨어지는 눈은 흔적도 없이 물에 녹아 내렸다. 멀리 뒷 쪽에서 삼륜차가 다가오더니 우리가 가는 길 앞에서 멈춰 섰다.

“타시지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나 걸어서 가시기에는 무거울 터이니 차에다 싣고 가지지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네, 저는 강야에 삽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일을 벌려 냈지요, 장사를 합니다.”

민철이와 나는 기름통을 들고 차에 올라탔다. 꺼먹 탄을 실은 차였다.

“어디에 사십니까?”

차 주인이 물었다.

“네 초등학교 옆에 삽니다.”

“거기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어떻게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기름이 필요해서 주유소에서 사 가지고 가는 길이지요.”

우리를 태운 차가 우체국이 있는 언덕을 올라 보건소를 지나서 초등학교 옆에 다다랐다.

“고맙습니다. 이 곳까지 태워다 주셔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놀러오십시오.”

차 주인은 명함을 한 장 꺼내어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웃어댔다. 산 밑 저 만치 교회 건물이 보이고 길 입구에는 길촌교회라고 쓰인 안내판이 붙어있었다.

“여기 사십니까?”

“네 교회에서 삽니다.”

“목사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영광입니다.”

“꼭 한 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동 반주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난로에 기름을 붓고 나서 불을 붙였다. 다시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을 켜다. 스위치를 올리고, 전기코드를 뽑았다. 엠프 파이어에다 자동연주기를 연결해서 크게 틀어놓았다. 잠시 후 교회 안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었다. 눈이 와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포근한 것 같았으나 겨울 바람은 그래도 매섭게 차가웠다. 산천이 그림을 그린 듯이 온통 새하얀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나는 간단한 청소를 마친 뒤에 가득 쌓인 우편물을 정리했다. 노회에서 보낸 공문,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낙선된 이가 재기를 꿈꾸며 의욕에 찬 글을 보낸 인사문, 동창회 회보, 기독교의 신문잡지 그리고 출판물을 한 가지씩 훑어 보았다. 그 가운데 반가운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캐나다에서 온 편지였다. 한아영이라고 한세민 선생의 딸이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의 근황과 함께 한 번 오겠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에 있는 시집에 불일이 있어서 다니러 오는 길에 들리겠다는 편지였다.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고생은 안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보고싶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보고싶다고 하신다는 이야기였다.

한세민 선생이 '주변 제일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에 병석에 있으면서도 제자를 찾고 있으니 내가 한국에 나가는 김에 한 번 들려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세민 선생은 나에게 고마운 분이였다. 스승이라기보다 친척 어른같이 느껴졌다. 내가 그 집에 양자로 가게되었던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늘 나를 이끌어 주었다. 새 학기에 등록금이 모자라서 찢찢맬 때도 그가 대납해 주기를 여러 번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나에게 깊이 기억되고 있는 스승이다. 어쩌면 내가 강원도 산촌에서 목회를 하고 지내는 것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였다.

그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교목이었다. 우리 학급에 담임이기도 했는데 우리들을 가끔 야단을 치고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우는 분

이었다.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면 발전보다 후퇴일 수 있다. 지금껏 살아 온 그루터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감을 느끼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생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넘기는 순응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경제적인 여건이었다.

한마디로 돈 문제였다.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재개발이 되어서 교인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구입해서 교회가 섰던 자리에다 그대로 교회를 세우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를 않았다.

한세민 선생의 얼굴은 손수건으로 가리어져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 내기 위해서였다. 그런 모습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살짝 눈을 뜨고 본 한세민 선생의 모습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몽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건 거짓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의 눈물이였다. 나는 그것을 본 것이다. 부모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잠시 전의 일이었다. 한 학생이 대청소 시간에 쓰레받기를 던지며 싸움을 하다가 교실의 유리창을 몇 개 깨뜨린 것이다. 청소하는 것을 검사하러 오던 담임인 한세민 선생이 이것을 바로 목격한 것이다. 한 세민 선생은 우리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실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 일을 놔두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유리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이행하진 못하게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저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완수하는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

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눈을 살짝 뜨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세민 선생의 표정을 보았다. 그 순간 한 선생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본 것이다. 그것은 학교의 교목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했으나 내게는 새로운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학교에는 목사님이 여럿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제일 친근감이 있는 믿음이 좋다는 한세민 교목이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한세민 선생은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있니?”

“없는데요.”

“그래? 그럼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 나하고 같이 가자”

“어디를요?”

“응, 승동교회라고 종로에 있는데 거기서 오늘 내 아내가 성경학교를 졸업하거든 네가 나와 함께 가서 축하 해 주면 아주 좋아 할 것 같아서 말야! 어때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려?”

“가지요, 꽃다발을 준비해야겠군요?”

“그러면 더욱 좋고”

승동교회에서 열린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한세민 선생과 그의 딸, 또 학교 대표로 참석한 민 선생과 나는 기쁜 마음으로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모두 음식점에 들렀다. 음식을 먹는데 내가 사모님에게 물었다.

“졸업을 하시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사모님께서서는

“할 일이 많이 있지” 하며 웃으셨다. 내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신데요”

“복음을 전파해야지.”

“복음이 무어지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기쁜 복된 소식이지” 라고 말씀 하셨다. 복된 소식이란 어떤 것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성경 말씀이지” 라고 하셨다.

성경말씀은 오래 전서부터 있어 왔고 그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일을 겪어가며 잘 살아 갈 수 있는 진리가 들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흰 백지 위에도 자신의 나상을 그리며 살아가듯 하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서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알아내듯이 인생살이의 사전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것은 진리였다. 내가 학교교실에서 배우는 성경시간에 열 번 참석해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임에 참석했다. 다른 반 반장의 권유로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학급 대표들만이 참석해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소위 동맹휴학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주요안건은 김성일 교장의 사퇴였다. 아울러 한세민 교목도 사퇴 권유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이유는 그가 학교 재단 이사라는데 있었다. 교장인 김성일 교장만 사퇴해서는 안되고 한세민 교목도 내쫓아야 앞으로 학교가 잘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재단의 분규였다.

일설에 의하면 김성일 교장과 한세민 교목은 서울에 있는 경충대학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로서 서로 재산을 정리하여 운영이 부실한 학교를 구입해 재단을 구성하고 이사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카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책 더미 앞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책이 너무 많아도 이사할 때는 부담이 되는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층 아파트에 살다가 생활이 여유치 않아 변두리에 있는 개인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일년 동안이나 같이 살다가 살림을 내어 주려고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따로 살림을 낸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사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못 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빌린 돈도 있고, 은행

에서 용자를 얻은 것도 조금 남아 있어서 내친 김에 집을 처분하여 모두 갚고 나머지 돈을 갈라서 아들의 집을 마련 해 준 것이다. 그 나머지로 내 살림을 마련하고 아내와 둘이서 살게 된 것이다.

방 한 쪽에 마련된 서재에는 작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재에는 늘 책이 많이 있게 마련이지만 방 가득히 채워진 책들을 정리하면서 투정을 부린 것이다.

교내 재단분규로 인해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조정하는 사람은 교직원 가운데 있었다. 최호준 이사와 그와 가까이 지내는 일부 교직원들이었다.

김성일 교장이 학교를 인수하기 전부터 학교와 관계를 했고 학교를 인수 한 후에 새로 이사로 선임된 이였다. 그는 학생들이 모여서 동맹휴학을 결의하는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 이사의 사주를 받은 듯 여겨지는 주동자 노릇을 하는 선배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동맹휴학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손을 써 놓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잘못되어져도 퇴학당할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쟁하라는 것이다. 우리 뒤에 우리학교의 전통을 지켜온 최호준 이사가 밀고 있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 주고 있었다. 모인 학생들은 얼마동안 의견을 서로 교환하더니 내일로 정한 거사 날을 다시 확인했다. 결의문을 작성하고 행동강령을 만들어 프린트를 한 후 각반의 대표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는 토의 중에 학교에서 내쫓아야 할 선생 명단에 한세민 선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분 만은 안 됩니다. 그 분은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고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어 극구 반대했으나 허사였다.

이유는 이 학교를 김성일 교장이 인수를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댄

사람으로 김 교장 다음으로 실력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세민 선생을 포함해서 이사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판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말들이었다. 나의 의견이 무시 된 채 이튿날 거사가 행해졌다.

학교교정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침조회가 끝 날 즈음, 고등학교 상급생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학생들을 지휘했다. 학생들은 미리 나누어 준 결의문을 호주머니에서 일제히 꺼내어 큰소리로 결의문의 실천사항을 읽으며 결의를 다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쳤다.

“김성일 교장은 물러가라!!”

“김성일 교장은 물러가라!!”

“재단 이사진을 해체하라!!”

그러나 만만치 않았다. 동맹휴학의 결의가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서로 편이 갈리어지기 시작을 했다. 어느 새 마련되었는지, 아니면 미리 대비해 놓았는지 김 성일 교장을 지지하는 쪽의 학생들과 반대를 하는 쪽의 학생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서로 패가 갈리어 싸우기 시작을 했다. 교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목재를 닦치는 대로 손에 쥔 학생들은 날렵하게 단상에 뛰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주동하는 학생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순식간에 쓰러지면서 피를 흘렸다. 이를 지켜 본 학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내 경찰차가 와서 주동학생들 몇 명을 끌고가 버렸다.

이튿날은 김성일 교장의 비행이 실린 전단이 만들어져 교정에 뿌려졌고, 전단을 주워서 읽어 본 학생들은 모두가 머리를 내 저었다. 교육을 맡아서 지도하는 교장선생님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교장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겁탈해서 임신을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드디어 이 일의 수습을 위해서 김성일 교장이 일선에서 물러났고 한세민 선생이 교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



은 그치지를 앓고 열흘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학생주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구속되고 경찰이 학교 내에 관련인물을 데려다가 심문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 집에서는 한세민 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었다. 그가 딸만 하나 있었고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나를 무척 귀여워 해 주었다. 어느 날은 우리 집에 가정방문을 와서 나를 양자로 데려 가겠다는 말을 꺼내었다. 집안에서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의논 중이었다. 아버지의 허락만 떨어지면 양자로 가기로 되어있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양자로 가면 훌륭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교목 집에서 살아가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얘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때마침 동맹휴학이라는 재단 분규사건에 휘말려서 그만 중지되고 말았다. 나에게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환경이라도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만 하겠는가? 나의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한세민 선생은 교육자로서 훌륭한 인물이었다. 어느 곳 한 군데라도 나무랄 데가 없는 이었다. 그는 작은 키로 외모는 조금 외소했으나 다른 교육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진실함이 있었다. 진실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육자였다. 그가 이사회에서 교장 서리로 결정된 후에 교장실 앞에서 가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용산 한강변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교장선생님이 쫓겨났죠? 뭐 잘못 하신 게 많은가요?”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너희 때는 공부를 할 때이니 공부만 하여야 한다.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저 너는 공부나 잘 해라.”

“그런데요 선생님 정말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임신시켰다는 말 말예요?”

“아니다 모함이다, 그런 일없다 그 사람은 나와 20년 동안이나 한 학교에서 같이 지냈다. 그는 예수교 장로다.”

그는 김 교장의 비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힌 유인물의 내용을 부정했다. 모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른다. 박 교장은 1년도 채 못되어 새 학기가 되자 다시 교장의 자리로 돌아왔고 한세민 교목은 학교를 그만 두고 불광동 산꼭대기에 있는 난민촌에다 교회를 개척했다.

나는 그 때의 한세민 교목의 입장을 지금에서야 가늠할 수 있었다. 정 집사는 내게 들이댔다.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교인 모두의 공동 재산이기에 거기에 눈길을 두지 말고, 전세 거리라도 마련해 줄 터이니 어서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다. 김 장로가 자신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양 목사를 기술적으로 내어 보내고 다른 목사를 초빙 할 것을 궁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김 장로가 혼자서 실권을 쥐고 운영해 나갈 참이라고 했다. 며칠 전에 집사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니 앉아서 날벼락을 맞지 말고 미리 손을 써서 교회를 떠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정 집사의 말에 반박했다.

나를 위해서 소식을 알려 주는 것은 고마우나 나는 그렇게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교회가 머지않아 이전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나는 그럴 수 없네, 그리고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네 정 집사가 아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 하겠네! 일반 제직들과 목사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일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정 집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정 못 떠나겠다는 말이지?”

“나를 교회바닥에 묻게! 그리고 흙으로 나를 덮어!”

김 장로가 꾸미는 일을 보고 정 집사가 안타까워서 내게 미리 알려 준 것이었다. 나는 단호히 거절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허무감이 몰려왔다. 평생을 통해서 개척하고 세운 교회, 헌신하며 봉사하고 지내 온 20년의 지난 세월이 눈앞에 나타났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밖에 믿을 게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다 몸담고 지낸 지가 20년이 되었다.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이 예전에 공동묘지 자리이고 전철 차량기지가 된 곳이 논밭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훨씬 오래 전이었다. 나는 목동의 배수관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다. 무허가 건물 한 채를 빌려서 아내와 함께 내부수리를 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자 복덕방 아저씨가 첫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 다음으로 연탄을 배달하는 집 부부, 또 어린아이들 세 명, 그 외의 가족들 몇 명이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점차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칼산 동네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을 했다. 난민촌이었다. 각 곳에서 살던 이들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를 하자 시에서 철거민들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서 무상으로 대지를 준 곳이었다. 여러 곳에서 살던 이들이 모여서 사는 까닭으로 하루도 싸움하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칼산 시장 터 위에다 지은 집은 이층 건물이었다. 건물주는 이웃장독 골에 사는 과부와 눈이 맞아 정분이 났다고 했고, 건물을 짓는데도 과부의 돈이 일부가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다.

교회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이 은행에 저당설정이 되어있는데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되었다. 이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러 가구 모두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건물주의 아들이 석재 공장을 했는데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용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 공장이 부도가 나자 용자를 갚을 같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경매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래층에 세들어 있는 가나 문방구, 제이제이 패션 옷가게, 꼬꼬 닭 집, 혜지 미용실, 윗층의 미술학원, 모두가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그래도 교회의 목사님이 다른 이들 보다 낫 터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번 손을 써 보라는 것이다.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입장을 잘 알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주민들을 데리고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당장 교회도 문제였다.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우리의 처지를 설명하자 김 변호사는 법적인 해석을 했다.

“저당설정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건물이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법률적인 해석이었다. 경매된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설정된 날짜를 보고 계약서를 찾아서 대조해 보았다. 모두 실망했다. 저당 설정을 한 후에야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만이 설정 전에 이전되어 있었다. 교인들은 모두 좋아했다. 어느 집사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다 고도 했고 십자가의 군병이 가는 길은 홍해도 갈라진다고 까지 했다. 제직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세를 들지 말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한 채 사서 자체 교회건물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드디어 교회 건물을 구입했다. 무허가 건물이었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돈이 모자랐다. 집사 한 사람이 중동에 가서 일하고 벌어들인 돈이 은행에 있다면서 그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일반 이자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10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지만 교회가 원한다면 빌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해도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로는 조 집사가 돈을 빌려주는 까닭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안전하게 받으려고 결정한 일이니 뭐 그

렇게 고마워 할 일만은 아니라고 귀뜸을 해 주었다. 그게 사실이 그랬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 꼬박 날짜를 맞추어서 주다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져서 몇 달치가 밀렸다. 조 집사는 한 장로와 내가 심방을 가는 것을 붙잡고 빌려 준 돈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가는 길을 막아섰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자 잘못하다가는 원금까지 떼이겠다고 하면서 이자고 뭐고 모두 그만두고 원금만이라도 얼른 내놓으라고 했다. 교회 형편이 여전히 어려웠다.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교회운영이 자연히 어렵게 마련이다. 그러던 중에 집사 한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 집사가 교회를 먹어치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가 소쿠리 장수를 하는데 그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알려주었다. 신학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리도 없고 해서 빌려 준 돈도 있으니 아예 교회를 먹어 치우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허기사 교회건물을 살 때 든 돈의 반이 조 집사가 빌려 준 돈이었다. 갑자기 그 돈을 내놓으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한세민 선생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미 이삿짐을 쌓아 놓고 커다란 침대만이 방 한 가운데 덜렁 놓여 있었다. 한세민 선생은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더니 몇 권의 책 가운데서 한 권을 집어서 내게 내밀었다.

“짐을 모두 쌓아 놓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책을 좀 주는 건데..... 자 받아라 이 책은 인용사전이다. 성경을 인용한 것이니 앞으로 네게 필요할 것이다.”

나는 책을 받아 들었다. 검은 표지의 두툼한 한 책이었다. 『성경 인용사전』이었다. 손때가 묻어있었다. 표지를 한 장 들추니 “한세민 목사 안수 기념 1960년 5월 12일 김성일 장로 드림”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김 교장이 한 목사의 안수 기념으로 준 책인 듯 했다.

나는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스승이 보던 귀한 책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곁들여 있는 것 같았다. 한

세민 선생은 다시 일어서더니 책상 위 서랍에서 명함판 사진 한 장을 꺼내었다.

“이게 나다. 며칠 안 있으면 캐나다로 떠난다. 내가 지금 가면 다시 한국에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생각날 때 이 사진을 보거라”

한세민 선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물끄러미 다시 보기 시작했다. 희끗희끗한 머리 곁이 안경알에 비추인 햇빛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키가 작아서 학생들 사이에 땅개라고 까지 별명이 붙어졌던 한세민 선생, 그에게서 원숙한 삶을 살아 온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것은 은 향내였다. 세상을 오래 살아 온 사람들 어느 사람에게 이런 냄새가 없을까 마는 한세민 선생의 냄새는 유독 향기로운 냄새였다.

“그래 신학교를 가겠대구?”

“네”

“왜?”

“목사가 되려고요! 선생님처럼”

“그래?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평신도로 지내는 것이 제일 좋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평신도로 지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나는 한세민 선생의 의아한 말에 눈방울만을 굴렸다.

“목회자의 길은 어렵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다고 하고 온 힘을 다 들여 교인들을 돌보아도 모두 불평들뿐이다. 그런 게 목회생활이다. 어렵다.”

한세민 선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지를 찾아서 여러 곳을 다녔다고 했다. 신림동, 대림동, 불광동, 수색동, 주로 변두리 난민촌에서 사는 이들을 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불광동 산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학교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몽땅 들여서 건물을 구입했다.

난민촌의 ‘주변 제일교회’가 문을 열자 예배 시간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배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모여 교회 안이 가득 찼다. 1년이 지나자 1백의 신도들이 모였고 3년이 채 못 되었는데도 5백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다. 세례교인만 해도 3백 명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교회가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없다는 측과 짧은 목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목사는 이미 한물간 노 목사로 취급되었다. 교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아난게 아니라 한 목사 자신도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다. 처음 5년 동안은 부지런히 죽기살기로 기를 쓰며 부흥 전도에 힘을 써 왔으나 교인들이 많아지자 숨을 쉬며 목회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교인들의 불평이 시작된 것이다. 평소에 목사에게 불평을 자주 하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세력을 모았다.

교회가 싸움터가 되었다. 반대파 중에 집사 한 사람이 정보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목사의 비행을 일일이 캐내려고 다닌다고 했고, 교회를 갈라 나갈 파괴공작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자자했다.

교인들을 순한 양으로만 여기고 목자 노릇을 해오던 한 목사는 이내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평소에도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내쫓으려는 움직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목사가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자 교회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교회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재판은 다섯 차례나 계속 되었다. 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니 노회나 총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반대측의 교인들은 노회나 총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목사들의 편을 들어주기가 일수라며 무시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법원에다 소송을 낸 것이다. 노회에서 이런 교회 상황을 보고서 수습위원들이라며 오가고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다만 교회의 재산은 총회에 등록되어 있기는 해도 총회에게 권

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제일교회 교회명으로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어서 교회 자체의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대표자가 한세민으로 되어있어서 반대파가 요구하는 재산권 분할에 대한 청구소송은 마침내 기각되었다.

결국 교회는 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쪽이 승소했다. 반대파들은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인원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나머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교회 강단에는 한세민 목사가 그대로 맡아서 설교를 했다. 한차례의 회오리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교회가 점차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새 봄이 되어 움이 돌아나고 산과 들에 꽃이 피었다. 시집에 오는 길에 한 번 들리겠다던 날자가 훨씬 지나갔는데도 한 목사의 딸인 한아영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에 나는 기독교 신문 한 귀퉁이에 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한세민 목사 지병으로 소천” 했다는 기사였다.

나는 교회사택 수리를 마치고 책장을 정리하면서 그가 준 『인용사전』을 발견하고 다시 손으로 살펴보았다.

“네가 필요할 거다 목회를 할 때 보거라”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책장을 한 장 넘겼다. 표지 다음 장의 첫 페이지에 테이프로 두껍게 붙여놓은 한세민 목사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인용사전과 함께 내가 목회를 하며 절망의 늪을 걸어가면서 희망으로 가게 하는 살아 있는 인용사전이었다.